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 204-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마스크 착용 의향의 변화

2022. 11. 02.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1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

대중교통,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반 이상
길거리와 자연녹지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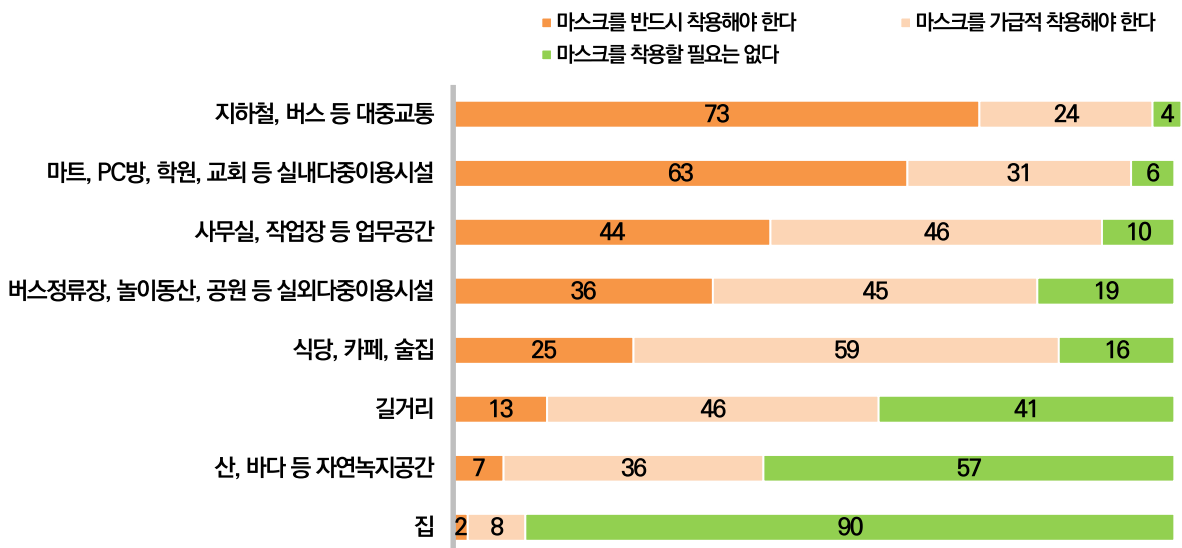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6월에 이어, 다양한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된 현재, 마스크 착용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조사에서도 대중교통과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대중교통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3%, 마트나 PC방·학원·교회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는 63%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까지 더하면, 대중교통과 실내다중이용시설 외에 사무실·작업장 등 업무공간, 버스정류장·놀이동산·공원 등 실외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술집 등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내공간과 사람이 많은 실외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길거리(마스크 착용할 필요 없다 41%), 산과 바다 등 자연녹지공간(57%)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높았다.

대중교통,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반 이상
길거리와 자연녹지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높아

(단위 : %)



질문: 다음 각각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10.14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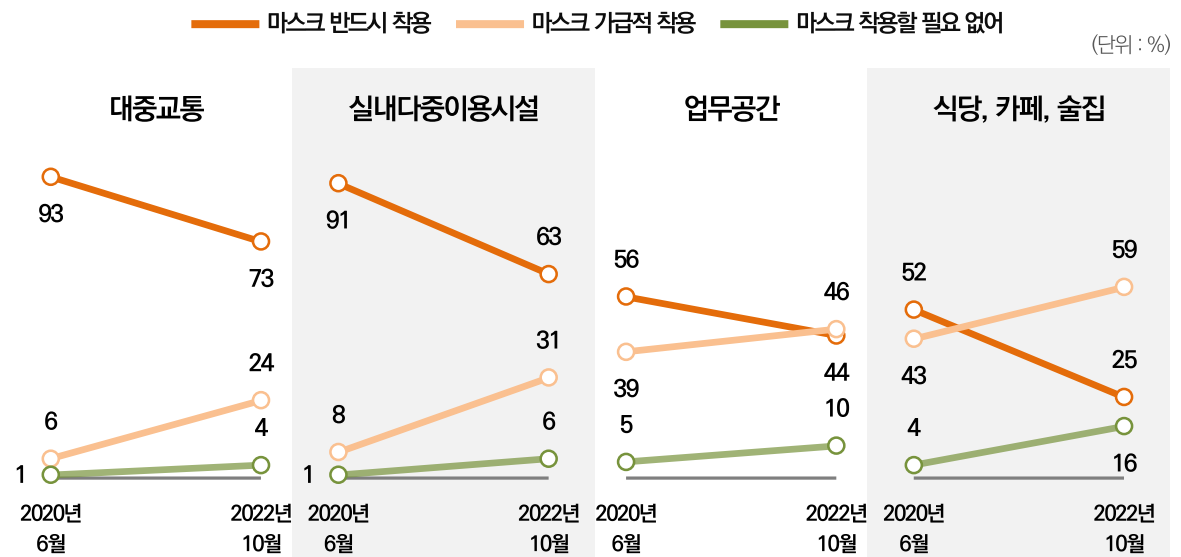
2020년 6월 대비,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크게 감소

다만 2020년 6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향 강도는 상당히 약해졌다. 2020년 6월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국으로 확대된 직후(2020년 5월 26일 시행)이고,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기 전이라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감염 예방 수단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확진자 수가 전 세계 주요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적어,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시점이기도 했다. 이는 매우 높은 마스크 착용 의향으로 이어졌다.

2020년 6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3%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3%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답해, 20%포인트가 하락했다.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실내다중이용시설(91% → 63%, 28%포인트 하락), 식당·카페·술집 등 음식점(52% → 25%, 27%포인트 하락), 업무공간(56% → 44%, 12%포인트 하락)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두 자리 수 넘게 하락하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실외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향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0년 6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실외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36%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답해 반토막이 났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큰 폭으로 하락했다. (49% → 13%, 36%포인트 하락). 산·바다 등 자연녹지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18%에서 7%로 낮아졌다.

2020년 6월과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 실내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향 강도 하락



질문: 다음 각각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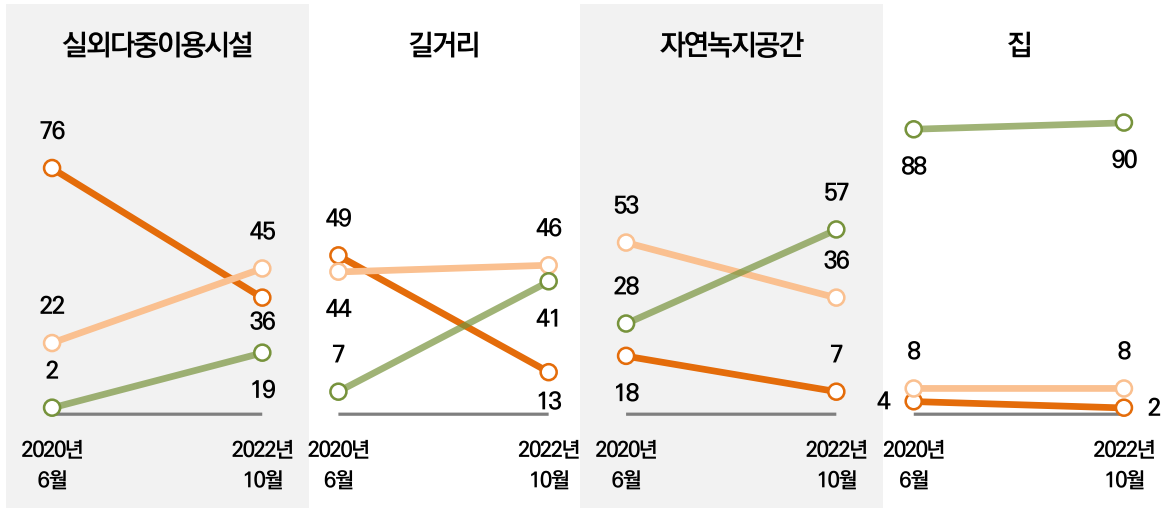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0. 6.19 ~ 22 // 2022. 10.14 ~ 1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20년 6월과 비교했을 때, 실외다중이용시설, 길거리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향 강도도 크게 떨어져

— 마스크 반드시 착용 — 마스크 가급적 착용 — 마스크 착용할 필요 없어

(단위 : %)



질문: 다음 각각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6.19 ~ 22 // 2022. 10.14 ~ 1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대면 상황

낯선 사람과 대면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64%

친척이나 같이 살지 않는 가족과 대면할 때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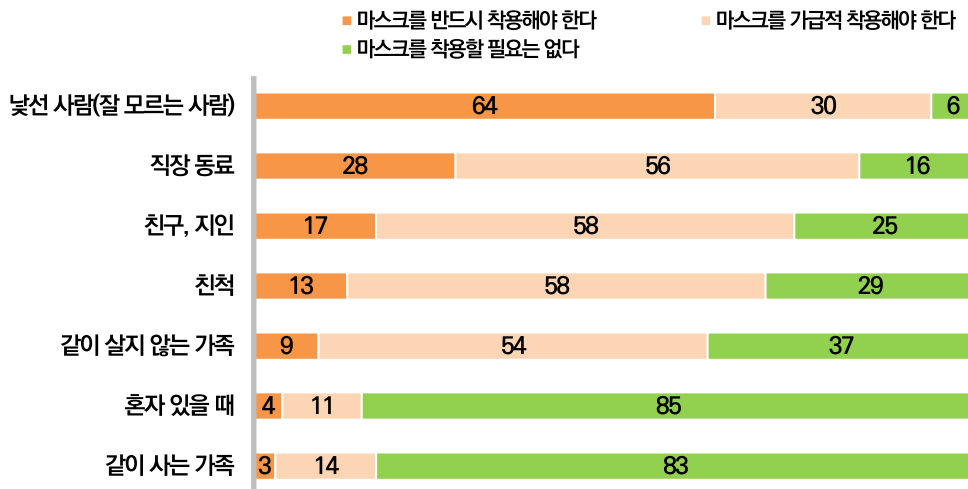
어떤 대면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보는지도 물었다. 낯선 사람(잘 모르는 사람)과 대면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30%)까지 더하면, 거의 대부분(94%)이 낯선 사람과의 대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직장 동료(마스크 반드시 착용 28%), 친구나 지인(17%), 친척(13%), 같이 살지 않는 가족(9%) 등 다른 사람과의 대면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낮았다. 다만,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까지 더하면 이들과 대면 할 때도 과반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혼자 있을 때(마스크 착용 필요없다 85%), 혹은 같이 사는 가족과 있을 때(마스크 착용 필요없다 83%)에만 마스크 착용이 필요없다는 인식이 높았다. 아직까지는 사람과의 대면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낯선 사람과 대면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64%

친척이나 같이 살지 않는 가족과 대면할 때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

(단위 : %)



질문: 다음 각각의 사람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10.14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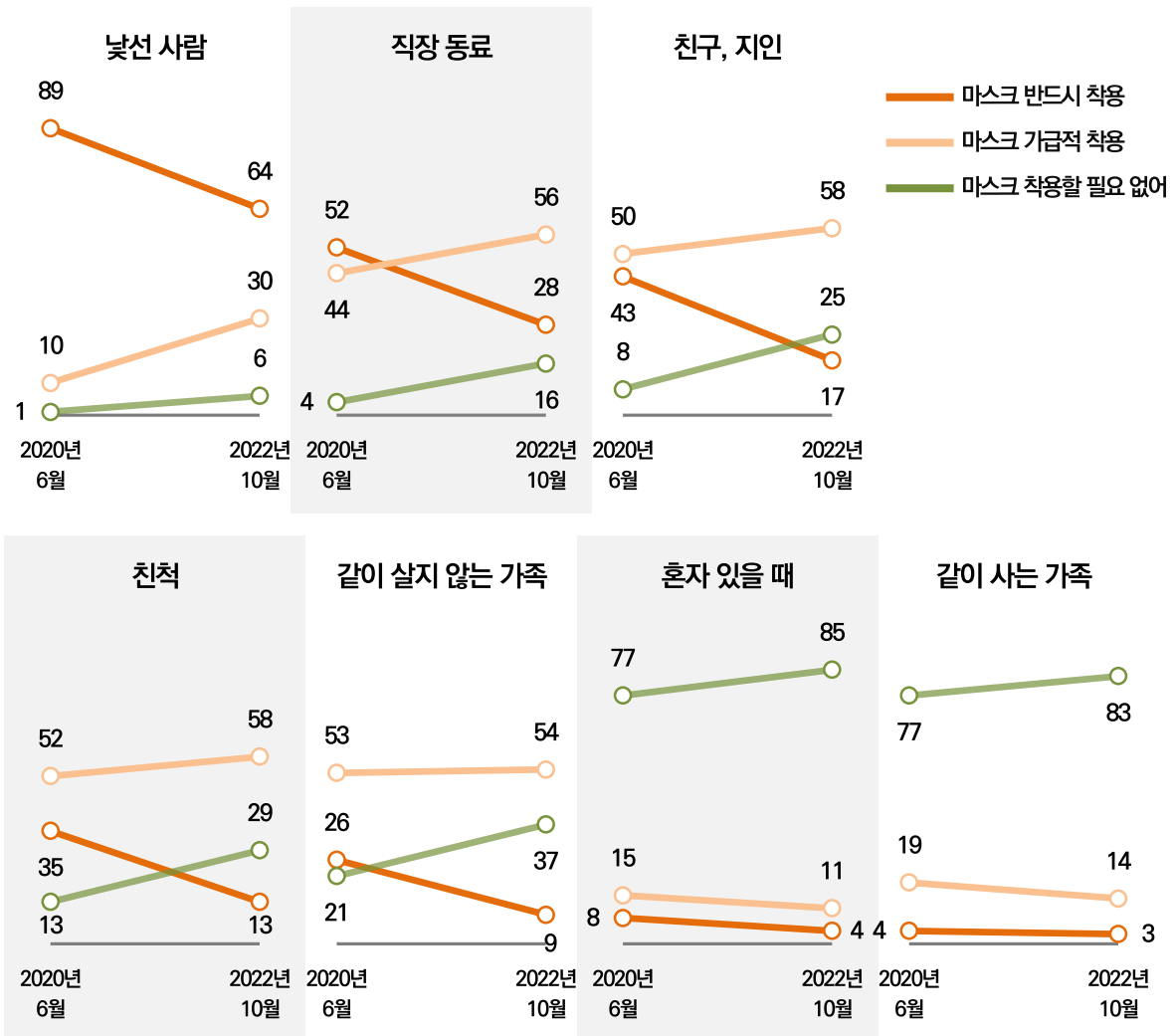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20년 6월 대비, 모든 대면 상황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크게 감소

다양한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향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대면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향 강도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6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9%가 낯선 사람과의 대면 상황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4%가 그렇다고 답해, 25%포인트 하락했다. 직장 동료 (52% → 28%, 24%포인트 하락), 친구나 지인(43% → 17%, 26%포인트 하락)을 만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크게 낮아졌고, 가족이나 친척을 만날 때의 마스크 착용 의향 강도 역시 크게 떨어졌다.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로 인한 피로감은 마스크 착용 인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2020년 6월과 비교했을 때, 모든 대면 상황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크게 감소

(단위 : %)



질문: 다음 각각의 사람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6.19 ~ 22 // 2022. 10.14 ~ 17

3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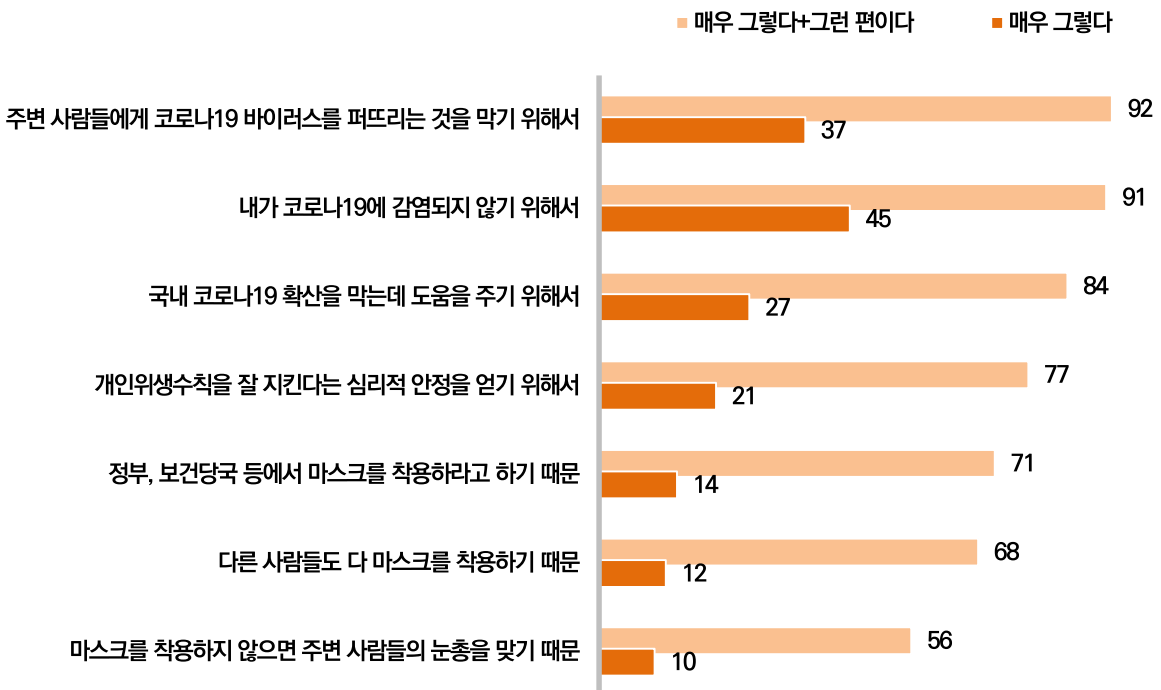
주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타인을 의식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마스크 착용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2%(1+2순위 기준)가 ‘주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고 답해 가장 높았다.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라는 응답 또한 91%로 높았고, ‘매우 그렇다’ 는 응답만 놓고 보면 45%로 주요 이유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84%)’,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킨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77%)’ 등의 순이었다.

타인을 의식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응답 또한 과반 이상이기는 했으나, 다른 주요 이유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68%가 ‘다른 사람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 이라고 답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맞기 때문’ 이라는 응답도 56%였다.

마스크 착용 이유, 주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타인을 의식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단위 : %)



질문: 마스크를 착용하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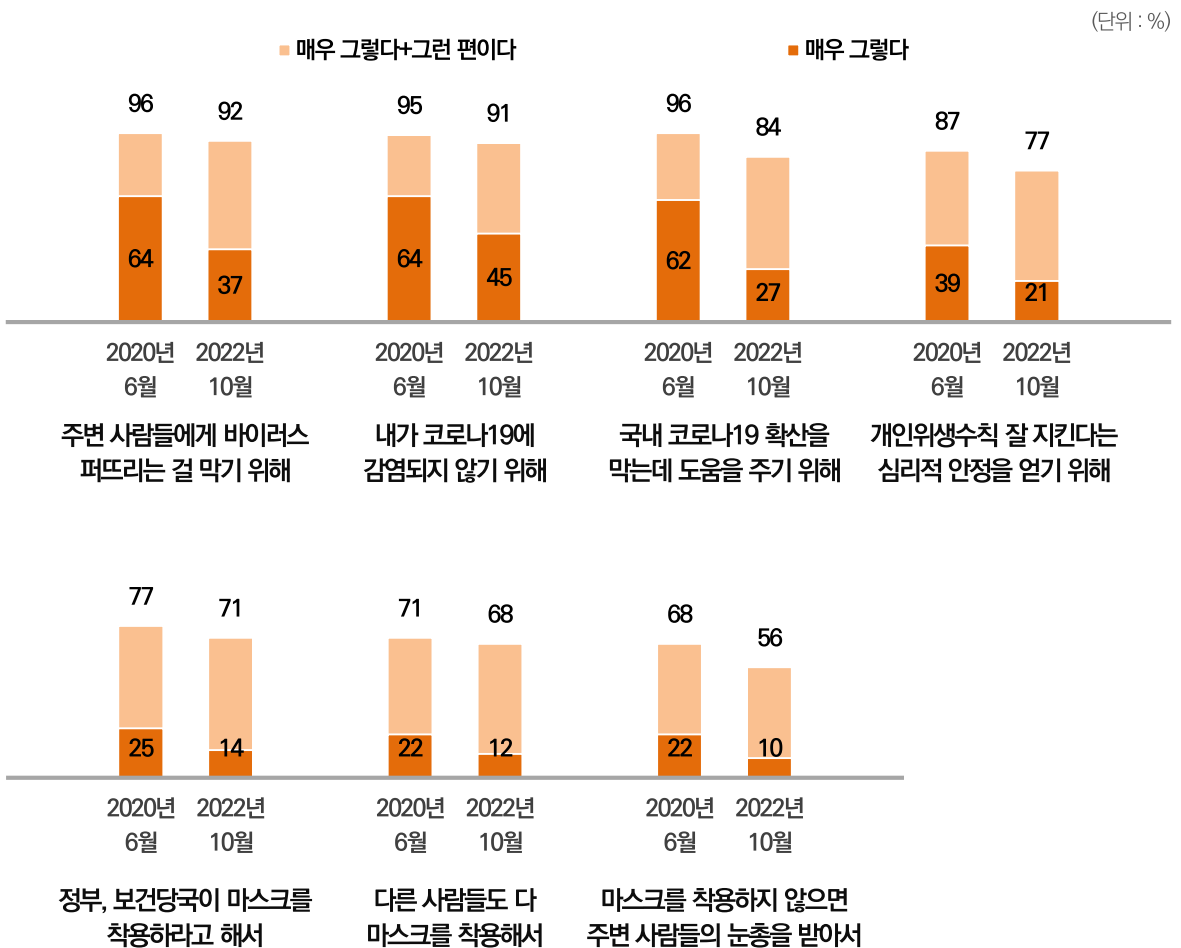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10.14 ~ 17

‘매우 그렇다’ 응답 변화 기준, 주변 사람들 코로나19 감염 방지, 국내 확산 방지 등 이타적인 목적의 마스크 착용 의향 큰 폭으로 감소해

마스크 착용 이유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62% → 27%, 35%포인트 감소)’,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걸 막기 위해(64% → 37%, 27%포인트 감소)’ 등 이타적인 목적에서의 마스크 착용 이유 감소폭이 특히 컸다.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64% → 45%, 19%포인트 감소),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킨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39% → 21%, 18%포인트 감소)’ 라는 응답도 감소폭이 컸다. 장소와 대면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향의 강도가 약해진 것처럼, 마스크 착용의 동기 또한 전반적으로 약해진 것이 확인되었다.

‘매우 그렇다’ 응답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코로나19 감염 방지, 국내 확산 방지 등 이타적인 목적의 마스크 착용 의향 큰 폭으로 감소해



질문: 마스크를 착용하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6.19 ~ 22 // 2022. 10.14 ~ 17

4 마스크 착용 시 느끼는 감정

**마스크 착용 시 느끼는 감정, 안도감(바이러스 방어)과 의무감(예방 규칙을 지킴) 높아
억압감(강제로 착용해야 함), 고립감(의사소통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평소 마스크 착용 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물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안도감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점이었다(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음, 1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감정을 매우 크게 느낌). 예방 규칙을 지킨다는 의무감이 동일하게 7.1점이었고, 이어서 감정표현을 안 하거나 표정을 숨길 수 있는데에서 오는 편안함(6.2점), 메이크업 등을 덜 신경써도 된다는 자유로움(6.2점),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는 자부심(6.1점) 등의 순이었다. 강제로 착용해야 하는 억압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5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스크 착용 시 느끼는 감정, 안도감(바이러스 방어)과 의무감(예방 규칙을 지킴) 높아
억압감(강제로 착용해야 함), 고립감(의사소통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단위 : 점)



질문: 평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다음 각각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전혀 느끼지 않으면 0점, 매우 크게 느끼면 10점으로 답변해 주세요

비고: 11점 척도(0점=전혀 느끼지 않는다, 10점=매우 크게 느낀다)로 질문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10.14 ~ 1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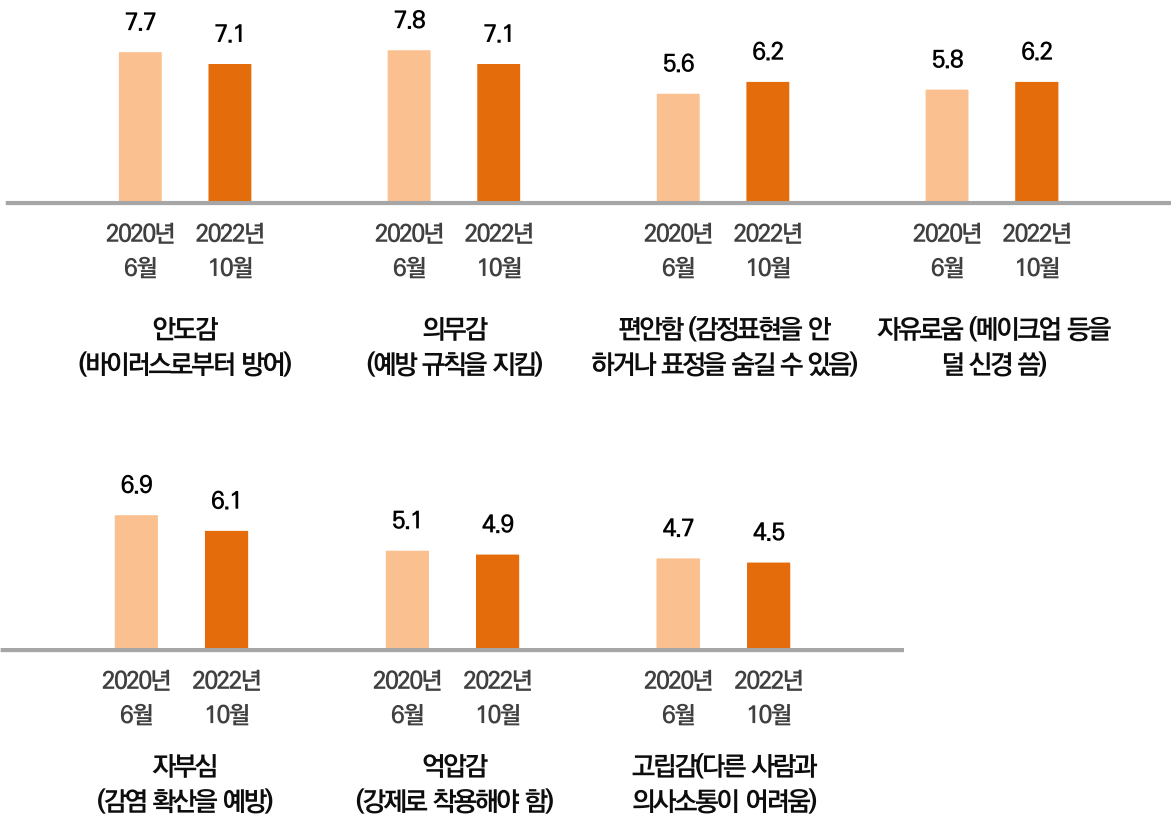
자부심과 의무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는 감정은 하락 편안함과 자유로움 등 개인적인 만족도는 상승

마스크 착용 시 느끼는 감정에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2020년 6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자부심(6.9점 → 6.1점, 0.8점 하락)과 의무감(7.8점 → 7.1점, 0.7점 하락)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기여한다는 감정의 강도는 하락하였다. 안도감(7.7점 → 7.1점, 0.6점 하락) 또한 하락해,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효능감 또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편안함(5.6점 → 6.2점, 0.6점 상승), 자유로움(5.8점 → 6.2점, 0.4점 상승) 등 마스크 착용 만족도와 관련한 감정은 상승했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공공선(公共善)의 인식은 하락한 반면, 마스크 착용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개인적 만족도 감정은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마스크 착용이 공적 역할 수행의 의미를 가졌으나, 유행 3년이 가까워진 현재 시점에서는 공적인 역할 수행이라는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마스크 착용 시 의무감과 자부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는 감정은 하락 편안함과 자유로움 등 개인적인 만족도는 상승

(단위 : 점)



질문: 평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다음 각각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전혀 느끼지 않으면 0점, 매우 크게 느끼면 10점으로 답변해 주세요

비고: 11점 척도(0점=전혀 느끼지 않는다, 10점=매우 크게 느낀다)로 질문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6.19 ~ 22 // 2022. 10.14 ~ 1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9월 기준 약 79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251명, 조사참여 1,325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8%, 참여대비 75.5%)
조사일시	• 2022년 10월 14일 ~ 17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